

왜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었나? 그리고 만나를 내는 나무라고? : 네이버 블로그

 m.blog.naver.com/j-bible/222537498133

식물로 본 성경

에셀나무 - 왜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었나? 그리고 만나를 내는 나무라고?



제이 바이블 이스라엘

2021. 10. 15. 9:26

이웃추가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עֶשֶׂל 에셀)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으며 (창 21:33)

에셀나무

히브리명 : 에셀 (עֶשֶׂל)

영명 : Tamarisk tree

학명 : *Tamarix aphylla* (L.) Karsten (위성류과 : Tamaricaceae)

식물 모양

에셀나무는 상록 교목으로서 키가 4~10m까지 자라고 사막에서 좋은 그늘을 만들어준다. 나무는 갈색이고, 잎은 2 mm 로 아주 짧고 사철 푸르다.



꽃은 7~11월에 분홍색에 가까우면서도 희고 자잘한 것들이 모여 이삭 모양으로 핀다. 그러나 기후와 지형에 따라 봄에 피는 것도 있으므로 일반인들이 볼 때는 흰색 또는 분홍색 꽃이 일년 내내 피는 것처럼 보인다.



특이한 점은 잎 속에 있는 특수한 선에서 염분을 분비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나무에 이슬이 맺히면 염분이 아침 햇살에 반사되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잎을 잘근잘근 씹으면 짹짹한 맛도 느낄 수 있다.



｜ 왜 에셀나무를 심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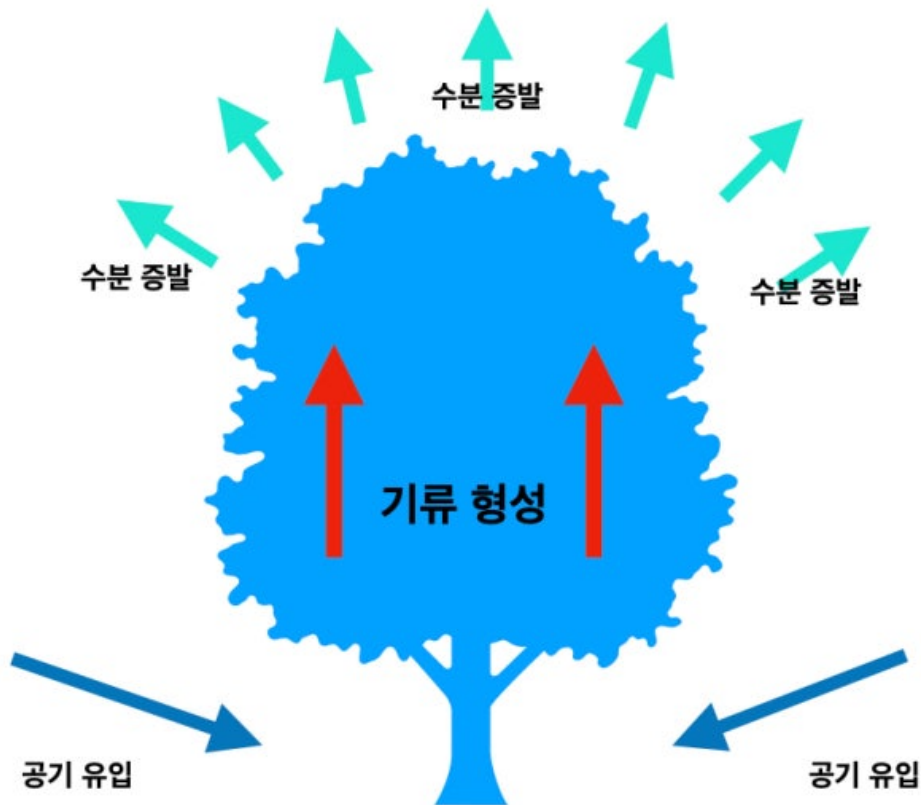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화친조약을 맺은 후 에셀나무를 심었다.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으며
(창 21:32-33)

에셀나무는 나무가 크고 잎이 늘 푸르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띈다. 특히 브엘세바와 같은 광야에서 크고 푸르른 나무를 본다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었다.

또한 **에셀나무**는 **앞에서 염분이 분사되는 특이한 나무이다**. 염분은 일반적으로 수분을 잘 흡수한다. 그 말은 에셀 나무는 다른 나무들에 비해 주변의 수분을 더 많이 흡수하였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아침이 되면 다른 나무들에 비해 많은 물방울이 에셀나무에 맺혀있다.

이렇게 맺혀있는 물방울들은 해가 나오면서 증발되어 사라지게 되는데 그때 수분이 위로 증발되면서 나무 아래쪽으로는 공기 유입이 생기게 되어 기류가 형성된다.



이렇게 형성된 기류는 에셀나무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원한 바람이 되어 에셀나무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원함을 더해준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푸르른 큰 나무가 그늘도 만들어주고 시원한 바람까지 선사하니, 고대 사람들은 이 나무를 "시원한 나무"로 인식하고 있었다.

자 그럼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왜 에셀 나무를 심었을까?" 아니 바꾸어서 질문해보면 "광야를 걷던 사람들이 멀리 있는 에셀나무를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맞다. "시원한 나무가 저기 있군! 좀 쉬었다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이제 창세기 구절을 보면 질문에 답이 있다. 아브라함이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적고 있다.

에셀나무를(עֶשֶׁל 에셀)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었다는 뜻으로 볼수 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곳에 쉬러 오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 할수도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었던 이유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기 위함이었다.

만나를 내는 나무라고?

어떤이들은 에셀나무가 "만나를 내는 나무"라고 이해하고 있다.

에셀나무 즉 영어로 "*타마리스크*" (*Tamarisk*) 나무는 약 10여종이 있다. 그 종자들 중에 사해 가까이에 사는 나무도 있고, 지중해 연안에 사는 나무도 있다. 그 종자들 중에 시내 광야에서 자라는 "*타마리스크 마니페라*" (*Tamarix mannifera*)라는 나무를 "만나를 만들어 내는 나무"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

이 나무에 사는 벌레들을 "만나충"이라고 하는데 이 벌레들은 에셀나무의 진액을 빨아먹고 배설을 하는데 그 배설물의 맛이 약간 달고, 모양이 갯씨와 솜사탕처럼 생겼다고 한다. 아랍사람들은 이 배설물을 "만"이라고 부른다.



아랍사람들이 말하는 "만"

하지만 이것은 성경에서 이야기 하는 "만나"가 아니다. 이것으로 성인이 배를 불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도 하고, 해가 뜨면 바로 사라지기 때문이다.

랍비들은 "만나는 하늘에서 눈처럼 내린 것"이라고 만나를 설명하고 있다.

